

국내서민금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09.08

김정렬(한성대학교 경제학과)

- I. 연구 목적
- II. 국내 서민금융시장 현황
-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V. 정책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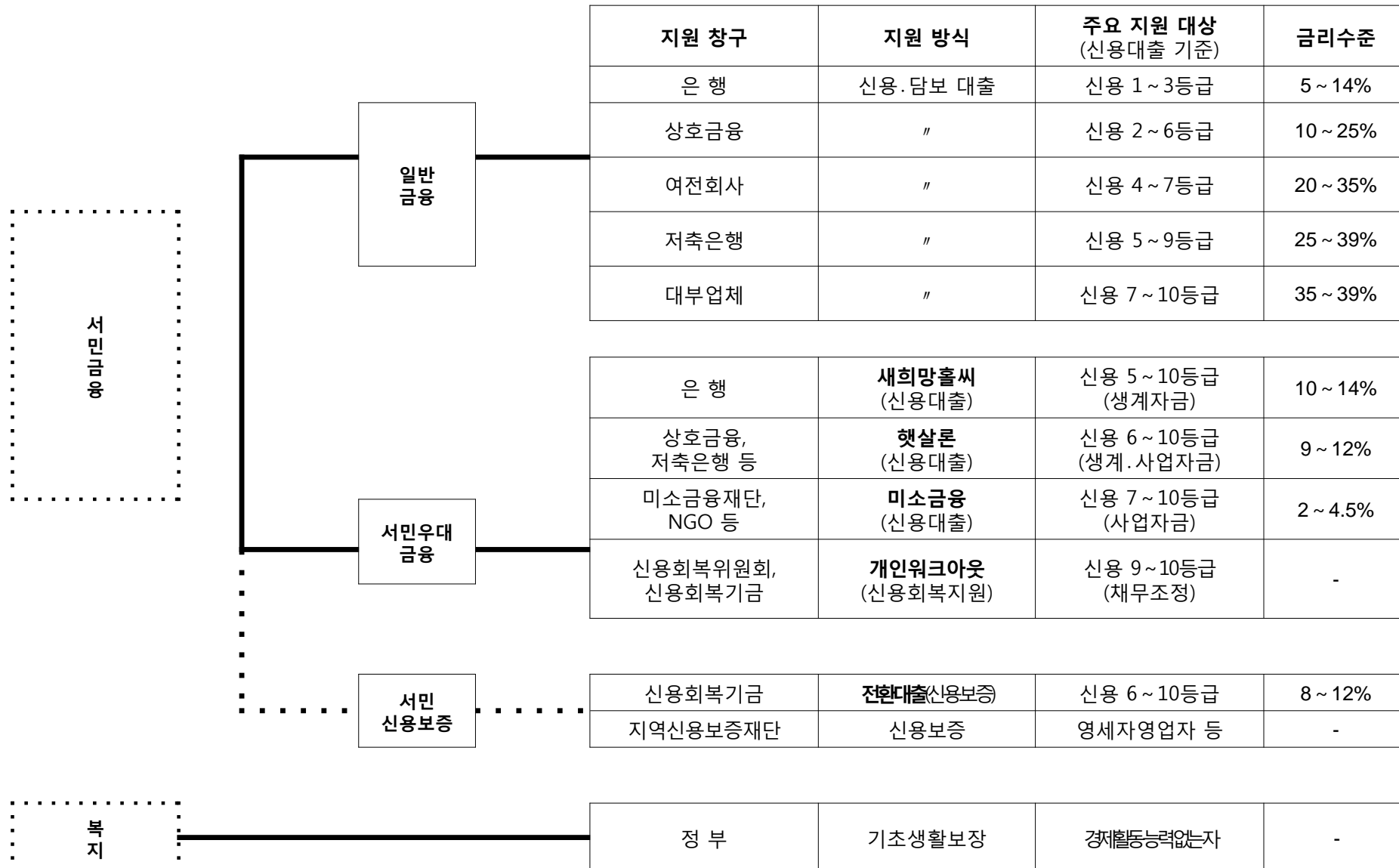
- ◆ 본 연구는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제도적 개선과 함께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책을 제시
 - ✓ 정부의 정책적 지원시스템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민간시장에서의 공급확대는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기여
- ◆ 이와 같이 서민금융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안을 모색
 - ✓ **국내 서민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의 서민금융공급에 대한 전반적 실태 분석**
 - 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카드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주요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잔액, 7~10등급의 대출비중 추이, 신용등급별 분포 및 특징 분석
 - ✓ **서민정책지원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뀐드림론 등 주요서민정책금융제도들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 ✓ **주요 서민/지역금융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 도출**
 - 신협의 주요 기능, 주요사업내용, 주요경영지표,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적 발전방안을 제시
 - 우체국금융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예금만 취급하고 있는 우체국금융의 대출기능 확대, 제도적 발전방안 등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도출

1. 서민금융 시장 및 지원체계

- ◆ 서민금융 시장 및 지원체계는 은행, 상호금융, 여전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민간금융,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의 정책서민금융으로 크게 나뉨
- ✓ 민간금융이 정책금융에 비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민간금융시장의 서민금융의 변화 분석이 중요
 - 민간서민금융시장에서는 신용등급에 따라 은행, 상호금융, 여전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순으로 이용되고 있음
 - 대출이자는 저이자의 은행부터 고이자의 대부업체에 이르기까지 중층구조를 이루고 있어 외형적으로는 서민금융의 문제는 없어 보임
 - 다만 민간금융시장이 신용등급에 따라 이용이 가능한 중층화구조가 은행의 저금리와 비은행의 고금리로 양극화되어 있어 현실에서는 시장이 작동이 되지 않아 중신용, 저신용 서민들은 20%가 넘는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 ✓ 정책금융은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 여러 정책서민금융기관에서 담당

표.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그림 1> 서민금융 지원 체계



2. 서민금융시장의 가계대출 현황

- ✓ 은행의 총대출금 중 가계대출금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가계대출금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2009년 이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고 있음
 - 반면 2007년 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가계대출의 축소가 기업대출의 확대로 변화
 -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으로 가계부문의 금융충격은 일시적인 것으로 해석됨
 - 그러나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충격은 일시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음

<표 1> 은행의 총대출금, 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 추이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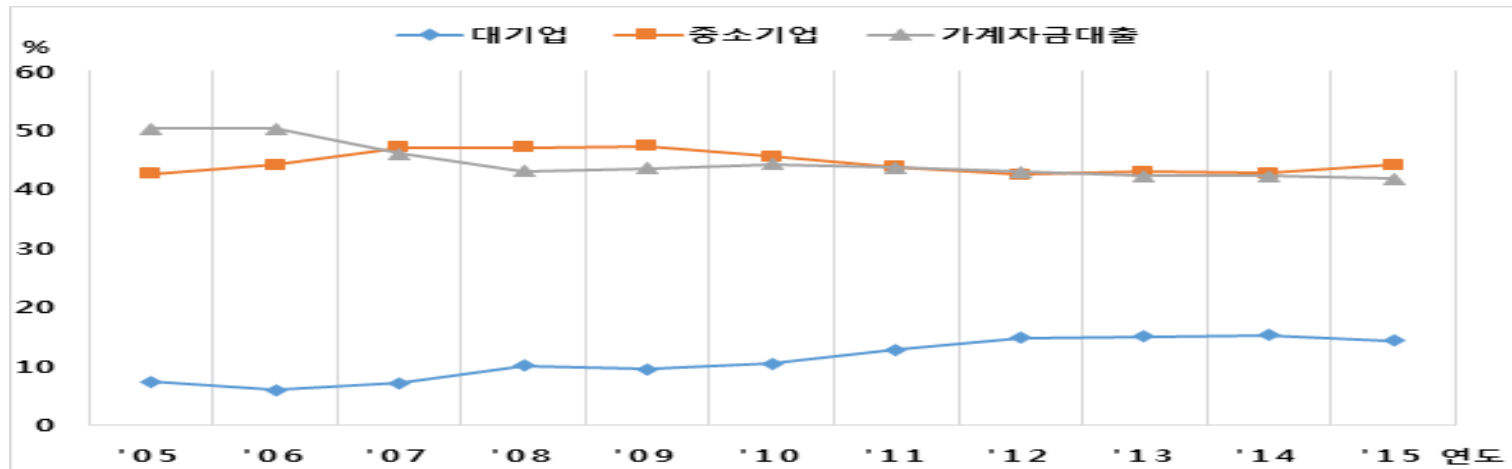
구분	총대출	기업자금대출	규모별		가계자금대출
			대기업	중소기업	
2005	604.73	301.20	43.92	257.27	303.53
2006	687.10	342.83	40.22	302.61	344.12
2007	787.98	426.32	55.85	370.47	361.61
2008	899.54	513.05	90.18	422.75	386.48
2009	939.42	532.00	88.38	443.58	407.42
2010	972.22	542.47	101.22	441.15	429.47
2011	1040.96	586.98	131.99	454.99	453.97
2012	1085.21	619.68	159.67	460.01	465.53
2013	1135.62	656.03	168.90	487.11	479.59
2014	1226.79	708.48	185.97	522.50	518.31
2015	1294.43	754.07	184.18	569.88	540.36

주: 총대출금은 기업자금대출과 가계자금대출의 합산으로 공공 및 기타, 은행간대여금은 제외한 금액임. 2015년도는 9월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

Ⅱ.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그림 2> 은행의 대기업 및 중소기업대출금, 가계대출금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 제2금융권의 대출 잔액 추이에 의하면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대출 잔액이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는 가계대출의 축소보다는 기업대출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주로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가계에 대한 금융공급은 위축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됨
- 다만 카드사의 경우 2015년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대출 잔액이 증가하였으나 가계대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카드부문에서는 가계대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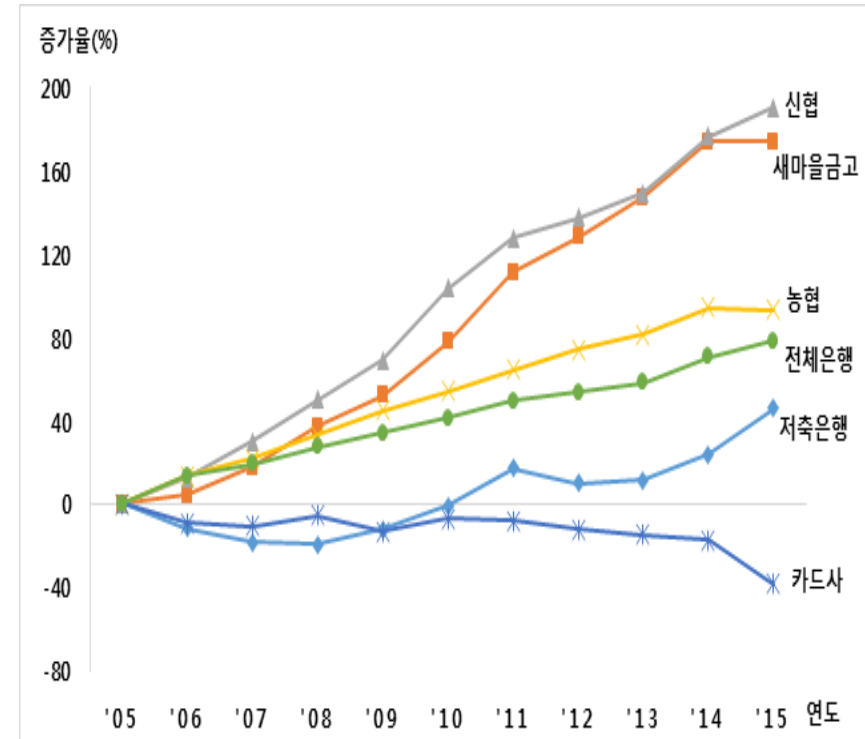
<표 2> 제2금융권의 대출 잔액 추이
(단위: 조 원)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카드사
2005	34.87	25.12	13.55	75.37	371.46
2006	42.03	26.06	15.25	82.30	386.16
2007	46.60	29.25	17.58	92.04	417.57
2008	53.79	34.18	20.30	108.14	467.83
2009	62.63	38.32	22.92	113.42	474.87
2010	63.53	45.03	27.55	114.50	517.70
2011	40.20	52.88	30.82	121.05	546.88
2012	31.82	56.82	32.15	126.28	577.74
2013	28.65	61.20	33.78	132.89	586.24
2014	29.33	68.10	37.47	141.48	594.81
2015	31.63	68.10	39.33	143.52	464.49

주: 영업정지중인 저축은행은 제외(12년 6월 이후 미래, 솔로몬, 한국, 한주 등), 2012년 농협자료는 농협은행주식회사자료임, 저축은행과 농협 대출은 공공 및 기타부문을 제외한 기업과 가계의 합산임, 카드사자료는 신용카드 사용내역으로 할부, 일시불,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포함함. 저축은행, 신협의 2015년도 자료는 6월자료. 카드사, 농협의 2015년도 자료는 9월 자료.

자료: 금융감독원(저축은행, 신협, 농협, 카드사), 새마을금고중앙회(새마을금고)

<그림 3> 주요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증가율 추이
(단위: %)



자료: 금융감독원

Ⅱ.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 반면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저신용 서민들이 대부업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2008년 이후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과 이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민금융 상황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대부업체의 대출 금리도 여전히 30%가 넘어 대부업체의 이용도 서민의 금융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없음을 시사
- 정부는 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우려하여 법정금리 인하 조치를 취해 왔음

* 대부업체 법정최고금리: 66%(’02. 10~) → 49%(’07.10~) → 44%(’10.7~) → 39.9%(’11.6~) → 34.9%(’14.4) → 27.9%(’16.3~)

<표 3> 대부잔액 및 거래자수 추이

(단위: 조 원, 만 명)

	2008.9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6
법 인		5.54 (150.5)	7.13 (204.4)	8.22 (236.6)	8.2 0(235.6)	9.50 (233.9)	10.57 (234.7)	11.74 (246.7)
자산100억 원 이상	4.77 (106.8)	5.02 (139.1)	6.56 (196.8)	7.65 (230.1)	7.58 (228.0)	8.86 (226.4)	9.92 (227.3)	10.96 (237.6)
자산100억 원 미만	0.45 (6.7)	0.52 (11.4)	0.57 (7.6)	0.57 (6.5)	0.61 (7.6)	0.64 (7.5)	0.65 (7.4)	0.78 (9.1)
개 인	0.38 (17.2)	0.38 (17.0)	0.44 (16.3)	0.49 (15.6)	0.49 (15.0)	0.51 (14.7)	0.59 (14.6)	0.60 (14.7)
합 계	5.60 (130.7)	5.92 (167.5)	7.57 (220.7)	8.72 (252.2)	8.69 (250.6)	10.01 (248.6)	11.16 (249.3)	12.34 (261.4)

주: () 안은 거래자 수, 2008년 9월 자료는 100억이 아닌 70억이 기준으로, 자산 70억 원 이상과 자산 70억 원 미만으로 나눠짐
자료: 금융위원회

<표 4> 대부업체 신용대출 금리 추이

연도	’09	’10	’11	’12	’13	’14	’15
신용대출	41.2%	41.5%	37.3%	35.4%	34.6%	32.1%	30.2%
담보대출	19.5%	18.6%	17.8%	17.8%	17.2%	17.3%	16.8%

3. 저신용자의 대출현황

- ◆ 전체금융기관 신용등급별 대출추이를 보면 저신용자 대출 규모 및 비중은 감소하고 고신용자 대출 규모 및 비중은 증가
 - ✓ 저신용자 대출은 일반적으로 1~10등급 중 7~10등급 사이에 속해있는 신용이 상당히 낮은 개인에 대한 대출을 말함
 - 금융위기이전 2007년에 비해 총대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7~10등급 사이의 저신용등급에 대한 대출은 규모자체도 감소했을 뿐더러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위기 전인 2007년의 19%에서 2015년에는 7%로 크게 축소
 - 반면에 고신용 등급(1~3등급)의 대출규모와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대출금액은 2007년의 311조에서 2015년에는 621조원으로 2배 증가하였으며, 비중도 48%에서 65%로 17%p증가하여 위기이후 대부분 금융기관들이 우량신용등급에 치중하여 대출을 운용
- ✓ 저신용자에 대한 충격은 장기화 또는 고착화되어 민간금융시장의 이용이 더욱 힘들어지거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저신용자의 금융압박은 더욱 심화될 전망
- ✓ 다만 최근 신용등급기준의 완화로 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의 저신용자의 대출 축소 추이를 절대규모의 축소라는 측면보다는 상대적 증감율을 고려해 분석하는 바람직함

표.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표 5> 신용등급별 대출비중추이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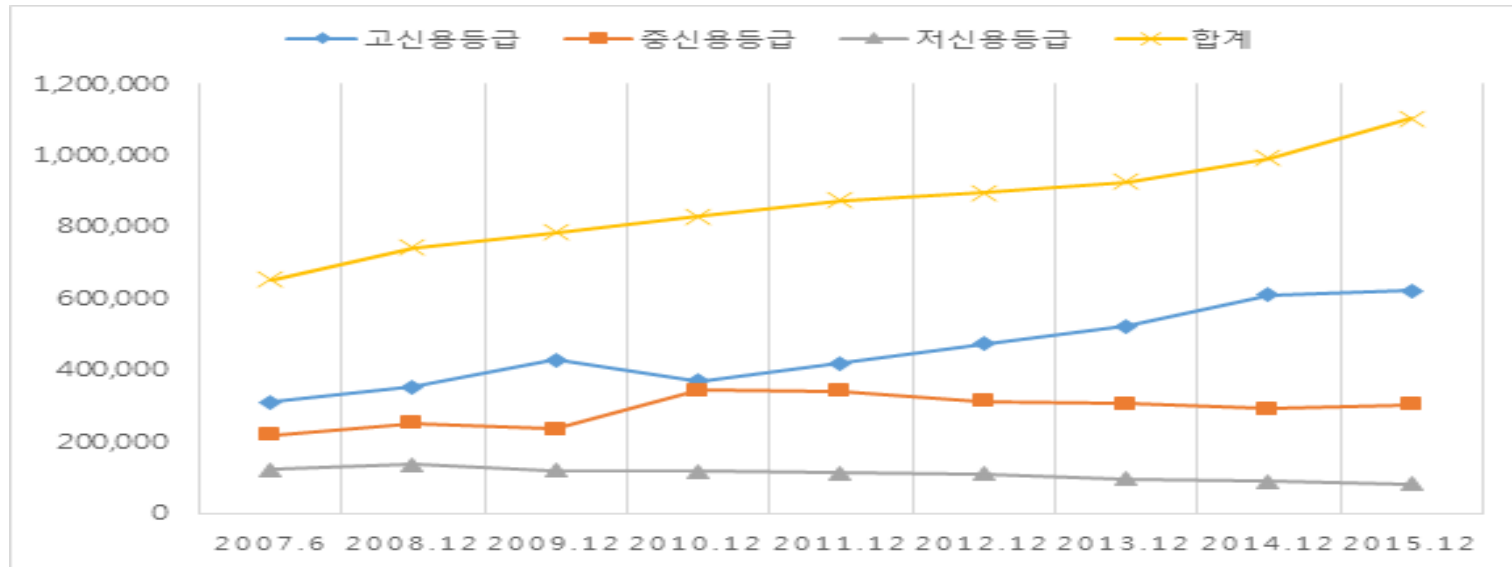
	2007.6		2008.12		2009.12		2010.12		2011.12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고신용 등급 (1~3등급)	311,485	48%	352,805	48%	427,760	55%	368,857	45%	419,317	48%
중신용 등급 (4~6등급)	218,392	33%	252,735	34%	235,251	30%	342,806	41%	340,783	39%
저신용등급 (7~10등급)	122,316	19%	136,289	18%	119,868	15%	117,026	14%	112,828	13%
총계	652,192	100%	741,829	100%	782,879	100%	828,689	100%	872,928	100%
	2012.12		2013.12		2014.12		2015.12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대출금액	구성비		
고신용 등급 (1~3등급)	472,116	53%	522,992	57%	609,387	61%	621,424	65%		
중신용 등급 (4~6등급)	312,863	35%	304,742	33%	291,404	30%	304,588	28%		
저신용등급 (7~10등급)	110,830	12%	97,194	11%	90,103	9%	81,612	7%		
총계	895,809	100%	924,928	100%	990,895	100%	1,100,931	100%		

주: 2007.6 ~ 2009.12 통계는 구스코어에 따른 것으로 2010.12 ~ 2012.12 통계인 신 스코어와 연속선상의 추이 비교가 불가능함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Ⅱ.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그림 4> 전체 신용등급 대출금액 추이

(단위: 십억 원)



자료: 금융감독원

◆ 각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대출증감률 추이

- ✓ 전체금융기관의 신용등급별 대출 추이에 의하면 2007년 이후 저신용자의 대출과 비중은 축소한 반면에 고신용자의 대출과 비중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음
- ✓ 그 이면에는 최근 들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기준의 완화에 의한 신용등급의 전반적인 상향조정도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 ✓ 저신용대출의 전체 증가율은 2008년 이후 2015년까지 7년 동안 -40%에 이르며, 평균적으로 매년 -7% 변화를 나타냄
 -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누적 -16%, 연평균 -2%로 감소, 그 다음이 신협으로 누적 -28%, 연평균 -4%, 은행과 새마을금고는 누적 -32%, 연평균 -5%로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음
 - 반면에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축소가 가장 심한 금융기관은 단위조합으로 누적 -53%, 연평균 -10%로, 그 다음이 카드사로 누적 -49%, 연평균 -8%의 감소가 있어 두 금융기관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축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음

<표 6> 기관별 저신용대출 증가율

	08-09	09-10	10-11	11-12	12-13	13-14	14-15	누적증가율 (08-15)	평균증가율
전체	-12%	-2%	-5%	-2%	-12%	-8%	-9%	-40%	-7%
은행	-20%	25%	-7%	0%	-15%	-8%	-8%	-32%	-5%
단위조합	-9%	-1%	-6%	-3%	-11%	-9%	-13%	-53%	-10%
신협	-2%	1%	0%	-2%	-12%	-9%	-8%	-28%	-4%
새마을금고	0%	-11%	4%	-1%	-9%	-8%	-11%	-32%	-5%
카드	-36%	7%	-7%	-6%	-18%	0%	3%	-49%	-8%
저축은행	0%	-2%	9%	-4%	-8%	-2%	-10%	-16%	-2%

주: 2007.6 ~ 2009.12 통계는 구스코어에 따른 것으로 2010.12 ~ 2012.12 통계인 신 스코어와 연속선상의 추이 비교가 불가능함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Ⅱ. 국내 서민금융시장의 현황

◆ 각 금융기관별 신용등급별 대출증감률 추이분석

- ✓ 각 금융기관별 저신용자 대출비중의 추이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비중이 축소
- ✓ 은행의 저신용자의 축소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은행 외 금융기관들의 저신용자 비중의 축소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은행: 9%(2007.7) → 4%(2015)
 - 단위조합: 36%(2007.6) → 12%(2015)
 - 신협: 45%(2007.6) → 15%(2015)
 - 새마을금고: 37%(2007.6) → 12%(2015)
 - 카드대출: 47%(2007.6) → 16%(2015)
 - 저축은행: 68%(2007.6) → 44%(2015)

<표 7> 기관별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 추이

(단위: %)

	2007.6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19	18	15	14	13	12	11	9	7
은행	9	8	6	8	7	7	5	5	4
단위조합	36	35	31	23	21	20	17	15	12
신협	45	40	36	32	29	28	24	19	15
새마을금고	37	36	32	25	23	21	18	15	12
카드	47	43	33	30	28	26	20	18	16
저축은행	68	66	66	64	63	65	61	56	44

주: 2007.6 ~ 2009.12 통계는 구스코어에 따른 것으로 2010.12 ~ 2012.12 통계인 신 스코어와 연속선상의 추이 비교가 불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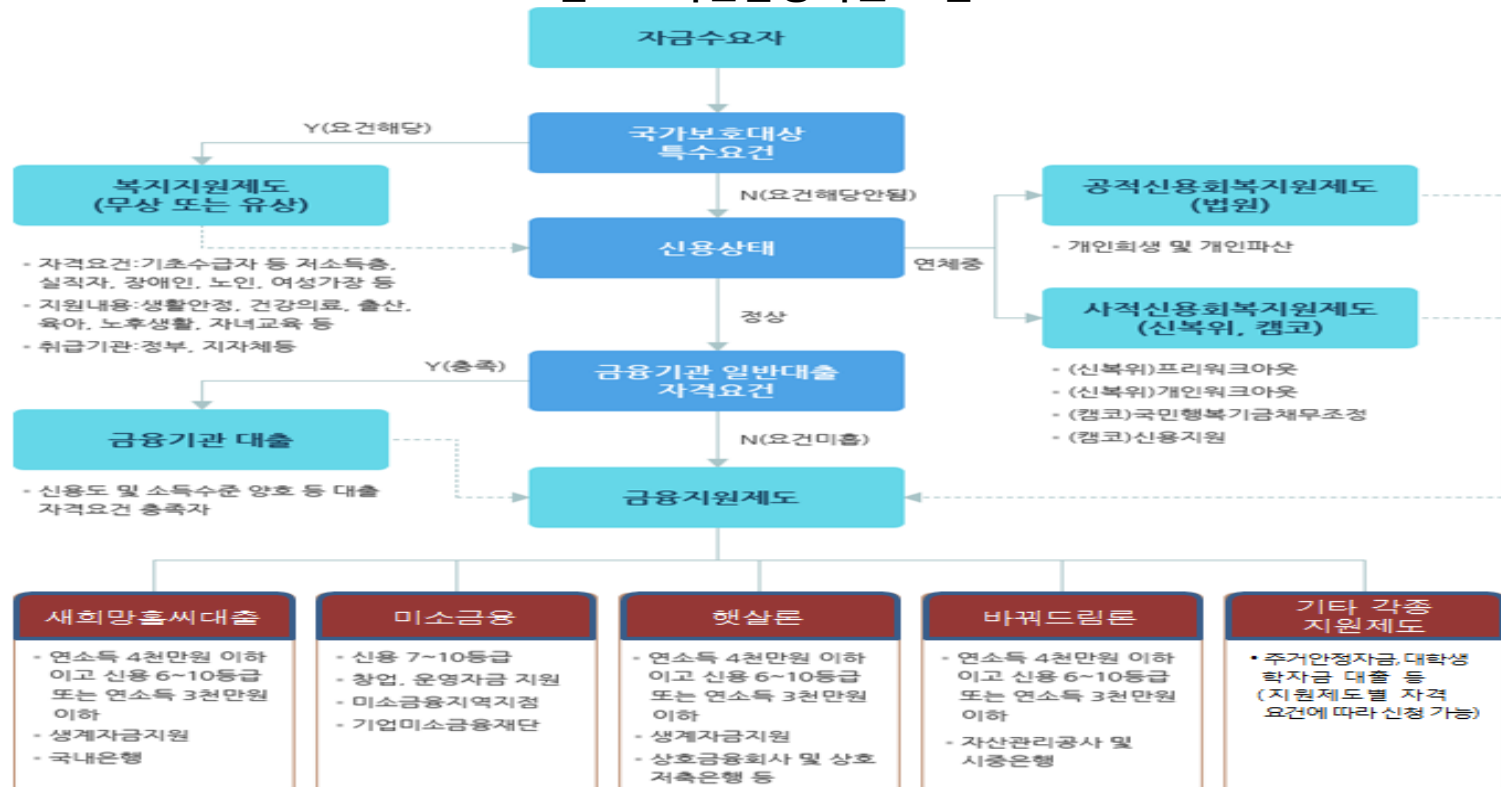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신용평가정보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1. 서민금융의 지원체계 개요

- ◆ 국내 서민금융지원체계는 은행, 상호금융, 여전회사,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의 일반금융,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등의 정책금융, 신용회복위원회와 신용회복기금에서 제공되는 금융지원프로그램과 신용회복제도가 있음

<그림 5> 서민금융지원 흐름도



자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책자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은 정책적 지원에 의존하게 됨

- ✓ 민간부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로 정책금융에 의해 지원됨
- ✓ 정책금융으로 지원되다보니 중복지원 경우도 있으며 비효율적인 부분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있음

<표 8> 서민금융상품 지원 현황

구분		①미소금융('15.12)	②햇살론('15.12)	③새희망홀씨('15.12)	④바꿔드림론('15.12)
대출대상		7~10등급,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6~10등급(4천만 원 이하), 연소득 3천만 원이하	6~10등급(4천만 원 이하), 연소득 3천만 원이하	6~10등급(4천만 원 이하), 연소득 3천만 원이하
이자율		연 2~5.5%	연 12% 이하(보증료 1% 포함)	연 12% 이하	연 12% 이하(은행이자 5.5%+보증료)※ 11.12부터 0.5% 인하
취급 기관		미소금융재단	서민금융회사 (지역신보 보증)	은행	은행 (국민행복기금 보증)
대출한도		창업자금 : 7천만 원 운영·시설개선자금: 2천만 원 임대주택보증금: 2천만 원 취업성공대출: 3백만 원 대학생청년햇살론: 8백만 원 교육비지원대출: 5백만 원 장애인자립자금: 12백만 원 간급생계자금: 5백만 원	간급생계 : 1천만 원 운영자금 : 2천만 원 창업자금 : 5천만 원 대환자금 : 3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전환한도) ※ 13.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4천만 원까지 확대
대출 실적 누계	기간	'08.7월 ~ '15.12.31	'10.7.26 ~ '15.12.31	'10.11.8 ~ '15.12.31	'08.12.18 ~ '15.12.31
	금액	13,073억 원	77,846억 원	94,327억 원	24,214억 원
	건수	109,954건	955,400건	652,113건('14.4현재)	224,555건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 서민금융 지원성과 제고를 위해 햇살론으로의 일원화 방향으로 서민금융제도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 각 지원제도가 유사한 점이 많아 서민금융 수요자의 혼란 및 불편이 초래되거나 중복지원의 가능성도 있어 지원성과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의 개편이 추진되고 있음
 - 예를 들어 햇살론(90%보증, 저축은행 등 취급), 새희망홀씨(은행 자체재원 활용), 바퀴드림론(행복기금 100%보증, 은행취급) 등은 모두 서민 생활안정자금 용도이나 유사상품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급됨에 따라 수요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복지원도 가능한 구조임
 - 동일인임에도 신용등급 평가가 지원제도 또는 취급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져 지원 여부도 달라질 소지가 있음
 - 소비자가 지원제도 또는 취급금융기관을 선택해야 되는 문제 등이 있음
 - ✓ 취급처, 재원출처, 보증지원 유무 등과 관계없이 상품명을 햇살론으로 통합하여 수요자의 혼란 또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추진
 - 다만, 지원 대상, 지원 성격 차이 등을 감안, 개인사업자 창업자금, 복지사업자 지원 등은 현행처럼 '미소금융' 명칭을 유지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2. 정책적 서민금융의 주요내용 및 지원현황

-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재원, 대출대상, 이자율, 대출한도 및 용도 등에서 차이를 두고 있음
- ✓ 다만 대출대상이나 자금용도 등에서는 대상이 불분명하여 서민들의 혼선과 정책지원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음

<표 9>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지원현황

구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재원	구성 목표	2조 2천억 원	2조원 ▪ 정부 1조원('11년부터): 중앙 0.6, 지방 0.4 ▪ 서민금융회사 1조원: 상호금융 0.8, 저축은행 0.2	은행 자체재원
	기조 성액	15,819억원 (휴면예금 4,565억원, 기부금 11,254억원)	2,831억 원 (정부 1,200억 원, 지자체 580억 원, 금융회사 1,051억 원) ※11년도 확정액으로 월별 및 분기별 조성금액 입금	
	잔액	9,751억원 ※15년 12월말 기준		
대출목표		2.2조원	5년간 10조원 (연 2조원)	5년간 은행권 영업이익의 10% ('11년도 목표 약 1조원)
대출대상		. 7등급 이하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이하 & 6등급 이하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이하 & 6등급 이하
이자율		연 2~5.5%	연 6~10.5%(보증료 1% 포함)	연 6~10.5%
한도 및 평균대출금액		창업: 7천만원 운영시설개선: 2천만원 임대주택보증금: 2천만원 취업성공: 3백만원 대학생청년햇살론: 8백만원 교육비지원: 5백만원 장애인자립자금: 12백만원 긴급생계자금대출: 5백만원	긴급생계: 5백만 원 운영자금: 2천만 원 창업자금: 5천만 원	한도: 2.5천만 원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1) 미소금융

- ◆ 미소금융은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총괄하며 미소금융 지역지점 또는 기업·은행 미소금융재단 등을 통해 지원을 받음

가. 미소금융재단의 사업

- ◆ 미소금융은 금융회사 및 민간 기업이 재단을 설치하고 휴면예금 및 기부금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조성된 재원을 통해 각각 미소금융, 소액금융,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고 있음
 - ✓ 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재단에 출연하고,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 ✓ 6대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과 5대 은행(KB, 우리, 신한, 하나, IBK)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하여 직접 미소금융사업을 시행
- ◆ 미소금융은 서민금융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저소득·저신용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9년 12월에 소액 서민금융재단을 미소금융 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민간부문의 지원을 더하여 사업을 확대 추진하게 됨
 - ✓ 사업 확대 이후 10년간 적립될 미소금융 재원총액은 개별재단을 설립한 기업 및 금융권으로부터의 기부금 1.5조원(기업 1조원, 금융권 5천억 원), 휴면예금 7천억 원(매년 500억 원의 휴면예금 발생 추정)을 합하여 총 2조 2천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 소액금융(민간복지사업자 대출지원)은 민간복지사업자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 및 신용회복, 사회적 기업을 간접 지원하는 사업
 - ✓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을 대상으로 창업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형태로 지원
 - ✓ 신용회복 중에 있는 자의 예상치 못한 급전 수요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
 - ✓ 사회적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회적기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형태로 지원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표 10> 미소금융의 주요업무내용

구분	미소금융	소액금융(마이크로크레딧)	전통시장 소액대출
재 원	. 지정기부금 - 5개 은행, 6개 기업 . 일반기부금 - 은행권 기부금 - 일반 기부금	. 휴면예금	. 휴면예금
복 지 사업자 (취급처)	. 은행·기업재단 - 5개 은행재단(57개) - 6개 기업재단(79개) . 지역지점(34개)	. 창업분야 복지사업자(11개) . 신용회복분야 복지사업자(2개) . 사회적기업분야 복지사업자(4개)	. 전통시장 ('15년 12월말 현재 477개) - 지방자치단체('15년 12월말 현재 144개) 협조
지원 대상	. 저신용자 - 신용 7등급 이하 자 . 저소득자 - 차상위계층 - 기초수급자 -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자활의지 있는 저소득계층 . 신용회복 중인 자 . 노동부 인증(예비) 사회적 기업	.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재단이 상인회에게 2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하며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영세상인에게 대출 및 회수)
자금용도 및 대출한도	. 창업자금(7천만 원) . 운영·시설개선헤자금(2천만 원) . 임대주택보증금착단원 . 취업성공대출보증금 . 대학생활자금대출보증금 . 교육비자금대출보증금 . 장애인복지자금대출보증금 . 긴급생계자금9백만원	. 창업자금(5천만 원) . 신용회복자금(1천5백만 원) . 사회적기업자금(1억 원)	. 상인회대출(1천만 원) . 명절간급자금(1천만 원)
대출 금리	. 연 2~5.5% (무등록자영업자는 연 2.0%)	. 창업자금(연 6.8% 이내) . 신용회복자금(연 4.0% 이내) . 사회적기업(연 4.0% 이내)	. 연 4.5% 이내
대출 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5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임차보증금은 만기일시상환)	. 12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일일상환) . 6개월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자료: 미소금융중앙재단

- ◆ 전통시장 소액대출은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에 대해 1천만 원의 소액대출을 연 4.5% 이내의 저리로 지원하는 사업
 - ✓ 재단이 상인회에게 2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하고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영세상인에게 대출 및 회수
 - ✓ 지원 금액의 5% 상당 금액을 상인회가 대손충당금(자부담금)으로 적립하는 등 발생 대손에 대하여 사업주체(중앙재단·지자체·상인회)가 공동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나. 미소금융지원 현황

- ◆ 미소금융의 지점은 총 170개(2015년 12월 기준)로 수도권에 73개, 지방에 97개 소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소재 지점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하였음
 - ✓ 기업재단은 총 79개로 수도권에 32개, 지방에 47개 분포
 - ✓ 은행재단의 경우 지점 수는 총 57개로, 수도권에 27개, 지방에 30개 소재
 - ✓ 미소금융중앙재단이 운영하는 지역지점은 수도권에 14개, 지방에 20개 분포

<표 11> 미소금융사업 실적(2015년 말 현재)

(단위: 개, 억 원, 건)

사업구분	기관수	총누계	
		건수	금액
미소금융사업	170	109,954	13,073
기업재단	79	56,393	6,847
은행재단	57	36,670	4,287
지역법인	34	16,891	1,939
복지사업자지원사업	17	39,397	1,647
창업분야	11	1,230	267
신용회복분야	2	37,961	1,185
사회적 기업	4	206	195
전통시장소액대출사업	477	49,572	2,524
소액보험사업	12	133,052	390
합계	676	331,975	17,634

자료: 미소금융중앙재단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 여신현황(취급 누계)을 살펴보면(2015년 12월말 현재), 198,923명에 총 1조 7,244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 12월 현재 대출 잔액은 5,531억 원이 남아있음
 - ✓ 미소금융의 경우 109,954명에 1조 3,07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은 4,774억 원이 남아있음
 - 기업재단: 56,393명에 6,847억 원 지원, 현재 대출 잔액은 2,143억 원
 - 은행재단: 36,670명에 4,286억 원 지원, 현재 대출 잔액은 1,599억 원
 - 지역지점: 16,891명에 1,939억 원 지원, 현재 대출 잔액은 1,032억 원
 - ✓ 소액금융의 경우 39,397명에 1,647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잔액은 436억 원이 남아있음
 - ✓ 전통시장의 경우 49,572명에 2,523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대출 잔액은 319억 원

- ◆ 연체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7.9%를 기록 중이나 미소금융은 6.2%를, 소액금융은 28.1%를 각각 보이고 있음
 - ✓ 미소금융의 경우 기업재단의 연체율이 가장 낮고(4.9%), 지역지점이 가장 높은 연체율(7.7%)을 보이고 있음
 - ✓ 소액금융의 경우 신용회복의 연체율은 6.4%를, 창업의 경우 63.0%를 기록하고 있어 지나치게 연체율이 높음
 - ✓ 반면에 전통시장의 경우 연체율이 7.0%로 평균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음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표 12> 미소금융 여신현황(취급누계, 2015년 말)
(소액보험사업 제외)

(단위: 개, 억 원, %)

구분	기관	취급 누계		회수액 (B)	대출 잔액 (C=A-B)	30일 이상	
		건수	대출 원금 (A)			연체액 (D)	연체율 (D/C)
미소 금융	기업재단	56,393	6,847.3	4,703.6	2,143.7	105.0	4.9
	은행재단	36,670	4,286.9	2,687.4	1,599.5	109.1	6.8
	지역지점	16,891	1,939.3	907.7	1,031.6	79.9	7.7
	계	109,954	13,073.5	8,298.7	4,774.8	294.0	6.2
복지 사업	창 업	1,230	267.4	159.7	107.7	67.9	63.0
	신용회복	37,961	1,184.9	915.9	269.0	17.1	6.4
	사회적 기업	206	194.7	134.5	60.2	37.6	62.5
	계	39,397	1,647.0	1,210.1	436.9	122.6	28.1
전통 시장		49,572	2,523.6	1,463.1	319.5	22.2	7.0
총계		198,923	17,244.1	10,971.9	5,531.2	438.8	7.9

자료: 미소금융중앙재단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최근 미소금융 전체 지원이 크게 증가하였음

- ✓ 2015년 미소금융 전체 지원 실적(미소금융지점, 민간복지사업자, 전통시장, 소액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3,879억 원(71,834건)으로 나타났음
 - 한편 2014년의 미소금융 전체 지원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21.2% 증가한 3,251억 원(60,022건)으로 나타났음
- ✓ 2015년 미소금융지점(170개)을 통한 대출은 3,044억 원(27,391건)으로, 전년 대비 22.0% 증가하였으며 이는 미소금융사업 출범 이래 연간 최대 실적임
 - 한편 2014년 대출은 2,500억 원(21,743건)으로, 전년 대비 23.3% 증가하였음
- ✓ 2015년 복지사업 지원 사업 규모는 218억 원(6,099건)으로, 전년 대비 28.8% 증가
- ✓ 2015년 전통시장 영세상인 대출실적은 558억 원(9,07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
 - 2015년 소액보험 지원 규모는 59억 원(29,270건)으로 전년대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

<표 13> 연도별 대출실적

(단위: 개, 억 원, %)

사업구분	2012		2013		2014		2015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미소금융사업	17,803	2,158.8	18,758	2,027.4	21,743	2,500.3	27,391	3,043.6
기업재단	9,665	1,181.3	9,987	1,094.3	10,620	1,212.8	12,064	1,380.4
은행재단	5,405	694.1	6,242	631.1	7,870	883.1	9,259	923.4
지역법인	2,733	283.4	2,529	302.0	3,253	404.4	6,068	739.8
복지사업자 지원 사업	2,990	157.7	4,461	185.4	4,609	169.4	6,099	218.2
창업분야	156	32.0	98	21.8	35	8.4	66	13.2
신용회복분야	2,805	100.0	4,348	149.9	4,559	150.0	6,024	200.0
사회적 기업	29.0	25.7	15.0	13.7	15.0	11.0	9.0	5.0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	8,749	429.6	8,621	411.4	9,596	521.4	9,074	558.0
소액보험사업	17,686	49.6	20,572	57.0	24,074	59.7	29,270	58.8
합계	47,228	2,795.7	52,412	2,681.2	60,022	3,250.8	71,834	3,878.6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다. 미소금융지원 특성

- ◆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건수 및 금액 면에서 7등급의 비중이 가장 높음
 - ✓ 전체 대출건수 중에서 7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6.3%를 보였으며 전체 대출금액 중에서 7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34.7%를 보임
 - ✓ 전체 대출건수 및 대출금액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용등급은 8등급으로 각각 30.7%와 29.7%를 보임

<표 14> 미소금융재단 대출의 신용등급별 분포

신용등급	대출건수		대출금액	
0	352	0.3%	2,982,700,000	0.2%
1	525	0.5%	7,092,300,000	0.5%
2	2,339	2.1%	35,684,300,000	2.7%
3	3,974	3.6%	58,390,410,000	4.5%
4	6,880	6.3%	94,252,250,000	7.2%
5	7,988	7.3%	102,340,900,000	7.8%
6	10,589	9.6%	125,576,400,000	9.6%
7	39,882	36.3%	453,701,254,000	34.7%
8	33,774	30.7%	388,320,080,000	29.7%
9	2,685	2.4%	29,406,150,000	2.2%
10	966	0.9%	9,600,800,000	0.7%
총합계	109,954	100.0%	1,307,347,544,000	100.0%

자료: 미소금융중앙재단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 대출기관별 지원 현황을 보면 건수 및 금액 면에서 기업재단에 의한 대출의 비중이 높음
 - ✓ 전체 대출건수 및 금액 중에서 기업재단에 의한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건수의 51.3%, 전체 대출금액의 52.4%를 보임
 - ✓ 은행재단에 의한 대출 비중은 전체 대출건수의 33.4%, 전체 대출금액의 32.8%를 보임

<표 15> 대출기관별 비중

재단	대출건수	비중(건수)	대출금액	비중(금액)
기업재단	56,393	51.3%	684,722,810,000	52.4%
은행재단	36,670	33.4%	428,694,684,000	32.8%
지역법인	16,891	15.4%	193,930,050,000	14.8%
합계	109,954	100.0%	1,307,347,544,000	100.0%

자료: 미소금융중앙재단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 자금용도별 지원 현황을 보면 대부분이 운영자금 및 창업자금 대출에 지원되었으며 전체 대출 건수 및 금액 중 각 자금용도별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운영자금 대출, 창업자금 대출의 순으로 나타났음
 - ✓ 전체 대출건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자금용도는 운영자금으로 전체의 68.2%가 대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업자금으로 전체의 16.1%가 대출되었음
 - ✓ 전체 대출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인 자금용도는 운영자금으로 전체의 58.3%가 대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창업자금으로 전체의 30.8%가 대출되었음

<표 16> 자금용도별 비중

자금용도	대출건수	비중(건수)	대출금액	비중(금액)
취업성공대출	67	0.1%	200,000,000	0.0%
대학생청년햇살론	2,286	2.1%	5,863,000,000	0.4%
장애인자립자금	31	0.0%	271,000,000	0.0%
교육비지원대출	4	0.0%	6,400,000	0.0%
긴급생계자금	2,025	1.8%	9,842,800,000	0.8%
무등록	4,633	4.2%	21,463,200,000	1.6%
시설	4,605	4.2%	51,968,350,000	4.0%
운영	75,015	68.2%	762,769,050,000	58.3%
임대주택	3,538	3.2%	51,718,900,000	4.0%
창업	17,750	16.1%	403,244,844,000	30.8%
총합계	109,954	100.0%	1,307,347,544,000	100.0%

* '14.7월 이후 무등록 자료는 창업, 운영자금에 포함
 자료: 미소금융중앙재단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2) 햇살론

- ◆ 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서민에게 저금리로 대출하여 서민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증부 대출임
- ◆ 신탁,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회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을 통해 지원

가. 햇살론 개요

- ◆ 정부는 마이크로เครดิต의 일종인 햇살론을 통해서도 저소득 서민계층에 대해 금융지원을 강화
 - ✓ 2010년부터 향후 5년간 서민금융회사(상호금융회사 및 저축은행)와 정부가 각각 1조원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서민에 대해 부분 신용보증대출(햇살론)을 통하여 자금공급을 지원하고 있음
 - ✓ 주요대상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저신용자가 해당, 한도는 긴급생계자금은 5백만 원, 운영자금은 2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 대환자금은 3천만 원으로 구분
 - ✓ 당초에는 2015년까지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서민금융진흥원이 생기면서 흡수되어 관련된 사업이 2020년까지 지속됨

나. 햇살론 지원 현황

- ◆ 개시 후 2015년 12월까지 7.78조원의 공급을 집행
 - ✓ '12.8월 보증비율 상향조치(85→95%) 이후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표 17> 연도별 대출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계	비율
사업자	5,912	1,999	1,647	3,063	3,131	3,351	19,104	24.5%
근로자	5,869	2,111	3,944	15,678	14,386	16,755	58,742	75.5%
합 계	11,781	4,110	5,591	18,741	17,517	20,106	77,846	100.0%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분석

- ◆ 정부는 수 차례의 제도 보완을 통해 햇살론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서민금융 확대를 도모
 - ✓ 정부는 고소득자 대출제한(연간소득 4천만 원 초과자), 저소득자 범위 확대(20백만 원→26백만 원→30백만 원), 성실상환자 지원허용(개인회생, 신용회복신청자 중 12회 이상 납부자), 고금리채무(연 20% 이상)에 대한 대환자금 취급, 고금리채무 범위 확대(카드론 추가) 등 21차례의 제도보완을 통해 햇살론의 운영 효율성 확대와 서민들의 접근성 제고를 도모하였음
 - ✓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보증은 각각 75.5%와 24.5%가 이루어짐
 - 햇살론 근로자의 보증공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전체 보증공급 증가를 가져왔으며, 특히 저축은행의 보증공급 증가가 전체 상승세를 주도
- ◆ '10년 7월 이후 '15년 말까지 약 95만여 명에게 약 7.7조원 보증공급
 - ✓ 연이율 20% 이상 고금리채무에 시달리는 저신용·저소득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한 대환대출은 '15.12월말 기준 약 15만 4천여 명에게 약 1조 2천 6백억 원을 지원
- ◆ 햇살론 용도별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을 살펴보면 근로자 생계자금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 개시 후 보증공급의 60.1%, 보증잔액의 62.9%가 생계자금으로 대출되었으며 보증공급의 23.6%, 보증잔액의 19.2%가 사업(운영)자금으로 대출

<표 18> 햇살론(전체) 용도별 보증공급 및 보증잔액 현황

(단위: 천 건, 10억 원, %)

구분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대환자금		생계자금		합계	
보증 공급	건수	193.4	(20.2)	0.4	(0.05)	154.7	(16.2)	606.8	(63.5)	955.4	(100.0)
	금액	1,839.1	(23.6)	5.9	(0.08)	1,264.6	(16.2)	4,675.0	(60.1)	7,784.6	(100.0)
보증 잔액	건수	88.4	(16.3)	0.1	(0.02)	101.2	(18.7)	352.3	(65.0)	542.1	(100.0)
	금액	633.3	(19.2)	0.6	(0.02)	590.1	(17.9)	2,071.5	(62.9)	3,295.5	(100.0)

주: ()안은 비중 %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분석

- ◆ 신용등급별 보증공급현황을 살펴보면 6등급 이하의 저신용자에 74.1%가 지원되고 있어 원래의 정책목적에 부합하고 있음

<표 19> 햇살론(전체) 등급별 기관별 보증공급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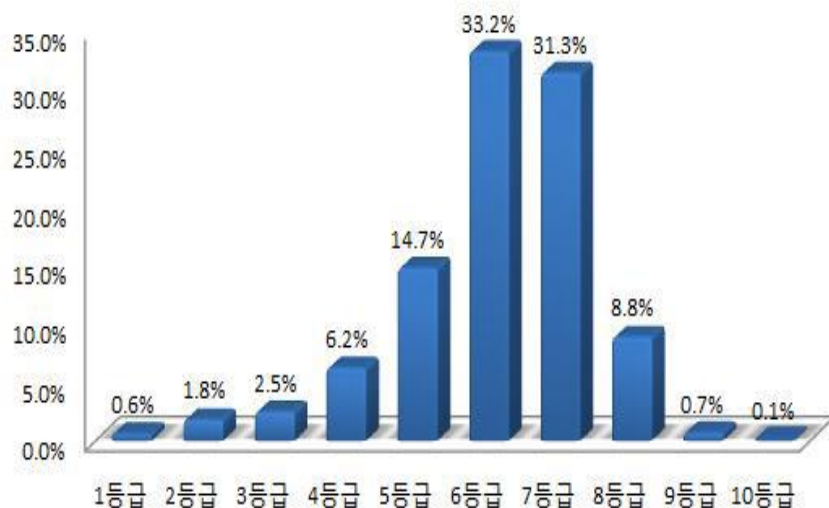
구분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	저축은행	합계
1등급	건수	0	0	0	5	2	45	52
	금액	0	0	0	62	11	320	393
2등급	건수	9	0	0	5	14	303	331
	금액	95	0	0	56	134	2,426	2,711
3등급	건수	17	2	0	8	15	623	665
	금액	140	13	0	82	137	4,820	5,192
4등급	건수	82	3	2	85	83	2,153	2,408
	금액	815	29	18	724	706	18,633	20,925
5등급	건수	289	28	5	434	279	9,593	10,628
	금액	2,676	363	54	3,976	2,417	79,376	88,862
6등급	건수	1,040	214	12	1,590	933	37,359	41,148
	금액	10,618	2,359	133	15,211	9,086	302,973	340,380
7등급	건수	986	222	37	1,869	1,065	43,345	47,524
	금액	9,965	2,350	427	17,975	10,684	347,623	389,024
8등급	건수	101	76	22	544	336	10,624	11,703
	금액	904	727	199	4,916	3,143	83,252	93,141
9등급	건수	1	1	0	2	10	120	134
	금액	8	10	0	9	86	899	1,012
10등급	건수	0	0	0	0	1	16	17
	금액	0	0	0	0	8	122	130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분석

- ◆ 신용 6등급 이하의 2014년 12월 까지 대출실적은 전체의 74.1%를 차지하고 그 중 6~7등급에 대한 대출은 전체의 64.5%로 집중되어 있음
 - ✓ 신용등급별 기관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의 경우 6등급 이하 대출비중이 80%로 저등급 비중이 매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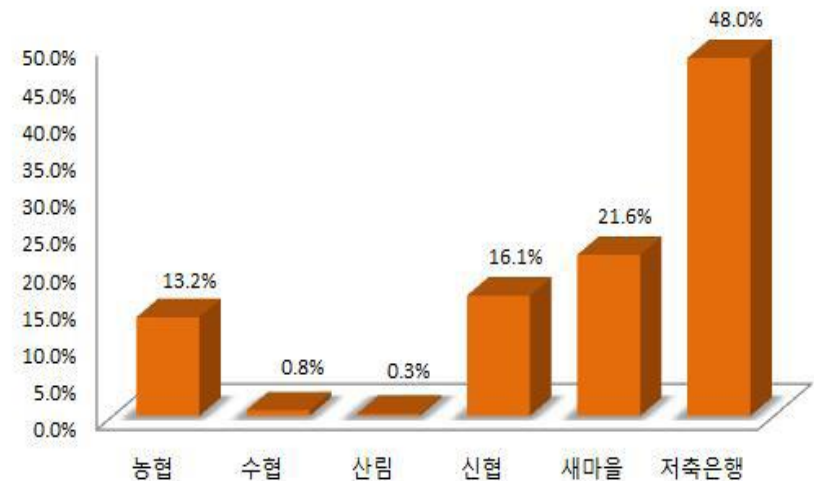
<그림 6> 햇살론 등급별 보증공급 비중(2014년 말 기준)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별 보증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저축은행이 48.0%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새마을금고가 21.6%를 차지
 - ✓ 신협 16.1%, 농협 13.2%, 수협 0.8%, 산림조합 0.3%의 비중을 보임

<그림 7> 햇살론(전체) 기관별 보증공급 비중 현황 (2014년 말 기준)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 햇살론 대상별 보증공급액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자 보증공급액이 73%, 사업자 보증공급액이 27%를 차지
- ✓ 햇살론 대상별 보증공급 건수 비중을 살펴보면 근로자 보증공급 건수가 76%, 사업자 보증공급 건수가 24%를 차지

<표 20> 햇살론(전체) 대상별 기관별 보증공급 현황 (2014년 말 기준)
(단위: 천 건, 10억 원, %)

구분		농협	수협	산림	신협	새마을	저축은행	합계
근로자	건수	79.6(76)	4.2(76)	1.6(70)	75.0(66)	69.3(47)	312.5(93)	542.2(76)
	금액	532.0(70)	32.3(72)	11.0(64)	563.7(60)	503.1(40)	2,556.3(92)	4,198.3(73)
사업자	건수	24.6(24)	1.3(24)	0.7(30)	38.1(34)	79.7(53)	23.1(7)	167.5(24)
	금액	232.5(30)	12.8(28)	6.3(36)	368.2(40)	742.9(60)	212.2(8)	1,574.8(27)
전체	건수	104.2(100)	5.5(100)	2.3(100)	113.1(100)	149.0(100)	335.6(100)	709.7(100)
	금액	764.4(100)	45.0(100)	17.3(100)	931.9(100)	1,245.9(100)	2,768.5(100)	5,773.1(100)

주: () 안은 비중 %. 무등급자의 보증공급은 제외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햇살론 취급 6개 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의 대상별(근로자, 사업자) 보증공급액 비중을 보면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5개 금융기관에서 근로자 보증공급액이 사업자 보증공급액보다 많음

- ✓ 저축은행은 저축은행 취급 전체 햇살론 공급의 92%가 근로자 보증공급임
- ✓ 반면 새마을금고는 취급 전체 햇살론 공급의 60%가 사업자 보증공급

<그림 8> 햇살론 기관별 대상별 보증공급 비중 현황(2014년 말 기준)



자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3) 새희망홀씨

- ◆ 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웠던 계층을 위해 별도의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대출해 주는 은행의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임
- ◆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개편

가. 새희망홀씨 개요

- ◆ 새희망홀씨는 금융감독원과 16개의 은행, 전국 은행연합회가 내놓은 제1금융권의 서민전용 대출 상품으로, 기존 은행권의 서민금융 상품인 '희망홀씨'대출을 개선한 상품
 - ✓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 '희망홀씨'대출을 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은행들이 '새희망홀씨'로 확대·개편하여 '10.11월 공동 출시한 이후 '15.11월 새희망홀씨 II로 재개편
 - ✓ 새희망홀씨대출II는 저신용,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인 자 및 신용등급 6~10등급이면서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대출
 - ✓ 금리는 연 6~10.5%수준(은행별로 다를 수 있음)이며, 대출금액은 최대 2,500만 원 이내에서 은행별로 자율 결정
 - ✓ 구체적인 대출 금리는 대출자의 신용,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개별 책정하는데 성실상환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리우대가 이루어짐
 - ✓ 한편 새희망홀씨 이용자중 1년 이상 성실상환자대상으로 기존 대출 금리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의 지원도 이루어짐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표 21> 새희망홀씨 지원 내용

구분	새희망홀씨
재원	은행 자체재원
대출목표	5년간 은행권 영업이익의 10%('11년도 목표 약 1조원)
대출대상	.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4천만 원 이하 & 6등급 이하
이자율	연 6~10.5%
한도 및 평균대출금액	한도: 2.5천만 원 평균대출금액: 882만 원

자료: 금융위원회

나. 새희망홀씨 지원 현황

◆ 2015년 12월까지의 대출실적은 총 9조 4천억 원 지원

- ✓ 은행권 새희망홀씨의 공급 확대(목표 : 연 2조원 → 2.5조원)를 지속 유도하고, 연체율 추이 등 손실흡수능력 모니터링

<표 22> 새희망홀씨 지원 실적

(단위: 억 원)

구분 (사업 개시월)	~'09	'10	'11	'12	'13	'145	'15	누적
새희망홀씨 (10.11)	-	2,677	13,650	19,874	18,983	19,559	19,584	94,327

자료: 금융감독원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 새희망홀씨 평균대출금리는 평균대출금리(신규 취급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서민들의 금리인하 혜택이 커지고 있음
 - ✓ 2014년 12월 평균금리는 8.07%로 전년 보다 1.53%p 하락
 - ✓ '12.12월 9.94% → '13.12월 9.60% → '14.6월 8.58% → '14.12월 8.07%
- ◆ 2014년 새희망홀씨의 저신용 저소득자 비중은 71.6%로 하락세를 보임
 - ✓ 저신용·저소득자 비중(%) : ('12년 말) 74.0 → ('13년 말) 72.4 → ('14.6월) 72.1 → ('14.12월) 71.6

<표 23> 2014년도 은행별 새희망홀씨 취급실적

(단위: 억 원, %)

은행명	누계* 실적	'14년			저신용·저소득자** 비중			연체율
		목표 (A)	실적 (B)	달성률 (B/A)		저신용	저소득	
신한	12,538	2,810	3,538	125.9	72.6	32.2	57.6	2.1
국민	11,338	3,000	3,383	112.8	87.8	45.4	76.6	1.7
우리	11,035	2,650	2,650	100.0	71.9	38.3	48.9	6.3
하나	8,060	1,850	1,998	108.0	64.1	30.2	46.4	1.7
외환	4,758	1,200	1,258	104.8	53.3	35.1	26.0	1.7
SC	2,622	600	202	33.7	54.6	28.0	38.1	2.6
씨티	2,766	600	683	113.8	52.5	35.0	26.5	3.8
농협	6,061	1,750	1,918	109.6	75.5	40.7	56.0	2.9
기업	6,262	1,650	1,857	112.5	56.7	32.6	36.1	1.6
수협	283	100	55	54.6	70.0	26.4	58.9	2.0
부산	2,716	610	679	111.3	77.6	26.8	70.5	2.2
대구	2,345	460	530	115.2	75.9	30.4	65.8	1.1
경남	1,420	430	343	79.8	57.8	35.5	30.9	3.7
광주	1,083	200	244	121.9	75.6	33.3	63.1	1.7
전북	1,300	250	180	71.8	93.5	36.9	89.4	3.6
제주	155	40	41	103.7	84.0	57.3	64.6	6.8
*누계: '10.11월~'14년 12월								
**저신용자는 신용등급(CB) 7~10등급, 저소득자는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자								
계	74,743	18,200	19,559	107.5	71.6	36.1	54.7	2.6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 ◆ 새희망홀씨의 연체율은 2.6%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임을 감안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판단됨
 - ✓ 다만, 은행들이 운용하고 있는 새희망홀씨는 신용등급에 따른 연체율에 관한 정보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낮은 연체율은 지나치게 신용위험이 낮은 대출자에게 보수적인 대출을 한 결과로 판단됨

<표 24> 새희망홀씨의 연체율 추이

구분 (사업 개시월)	연체율(%)					
	'10.12	'11.12	'12.12	'13.12	'14.6	'14.12
새희망홀씨 (10.11)	-	1.7	2.4	2.6	3.1	2.6

자료: 금융감독원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4) 바뀐드림론과 긴급소액대출

가. 제도 개요

- ◆ 바뀐드림론은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 20% 이상의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는 제도
- ✓ 국민행복기금의 바뀐드림론 이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환대출로서 실시되었음

<표 25> 바뀐드림론 자격조건 및 지원내용

구 분	자 격 요 건	비 고
보증금액	최대 3천만 원	고금리대출 원금 범위내
상환방식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월 단위, 최장 5년 이내(영세자영업자 6년)
대출이율	연 6.5~10.5%	은행 대출이율 연 4.0%(고정금리) + 국민행복기금 보증료율 (2.5%~6.5%)
대출은행	모든 은행	-
신용등급	6~10등급/특수채무자	연소득 3,000만 원 이하 또는 특수채무자*는 신용등급 제한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나 장애수당 수급자 등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연소득 4천만 원*(환산소득 기준) 초과 시 신용보증 제외 * 자영업자 또는 부양가족 2인 이상인 경우 4,500만 원
연체여부	정상 상환자	채무 연체증인자 · 최근 3개월 내 연체기록 보유자 ·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제외
전환 대상채무	대출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연 금리 20% 이상 고금리 채무	신용보증신청일 기준 담보대출, 할부금융대출, 신용카드이용액(신용구매·현금서비스·리볼빙 서비스·대금)은 전환대상에서 제외
제외대상	-연 20% 이상 금융채무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 -소득에 비해 채무액이 과다한 자(연소득 대비 채무상환액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분) -현재 연체 중인 자, 과거연체기록보유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기타 보증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자	

자료: 금융감독원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나. 지원 실적

- ◆ 바뀔드림론의 실적은 2015년 말까지 총 인원 약 22만 4,555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금액으로는 2조 4,214억 원에 이릅니다
- ◆ 신용회복지원자에 대한 소액대출 규모는 2015년 말까지 총 인원 5만 1,481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금액으로는 1,811억 원에 이릅니다

<표 26> 바뀔드림론과 소액신용대출 실적

(단위: 건, 억 원)

구분	바뀔드림론(신용보증)		소액신용대출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11년 이전	31,505	3,116	5,081	178
2011년	46,164	4,752	9,575	356
2012년	62,734	6,727	11,941	430
2013년	57,040	6,226	9,277	314
2014년	17,296	2,236	7,874	290
2015년	9,816	1,257	7,733	244
누적실적	224,555	24,214	51,481	1,811

- ◆ 한편 국민행복기금의 출범 이후 바뀔드림론 지원에 따라 바뀔드림론 이용기간(최대 5년) 1인당 평균 885만 원(월 15.3만 원)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 발생
 - ✓ 2013년 4월 ~ 2016년 2월까지 대부업 등 평균 34%의 고금리 대출 이용자 7만 1,000명에 대하여 평균 10.7%(23.3%p 인하 효과)의 은행대출로 전환 지원
- ◆ 바뀔드림론을 통해 은행권 대출로 전환 후 성실상환시 신용등급이 평균 1.5등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 바뀔드림론 이용자 1,650명 대상 설문조사(2015년 8월 캠프코) 결과 평균 8.3등급에서 평균 6.8등급으로 상승하였다고 응답
- ◆ 2014년 9월말까지 총 인원 약 21만 2천명이 혜택을 보았으며 금액으로는 2조 2,647억 원에 이릅니다

III.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지원체계 및 지원현황

3. 정책적 시사점

- ◆ 2008년 이후 정부 주도로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
 -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퀴드림론 등 다양한 서민금융지원 정책이 시행
- ◆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보았으나, 중복 지원, 수혜의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발생
 - ✓ 다수의 기관이 유사한 서민금융 상품을 지원함에 따라 수요자인 서민들이 느끼는 혼란이 크며, 자신에 맞는 상품을 자신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개별 지원기관을 찾아가야 하는 구조로 종합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움
 - ✓ 자금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자활지원 등의 측면에서는 부족한 실정
- ◆ 서민금융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수혜 확대를 위해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서민금융제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설
 - ✓ 서민금융 지원 상품의 햇살론으로 일원화
 - ✓ 복지와 고용을 연계하여 서민의 자활을 목표로 하는 서민금융지원 체계 구축
- ◆ 현재의 정책적 서민금융 지원은 지속 가능성의 한계, 민간 서민금융 상품의 위축 및 기능 상충 문제 등이 있음
 - ✓ 정책적 서민 금융 지원은 대출 및 보증 재원의 지속적 마련 없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추가적 재원 마련이 필요
 - 정책적 서민금융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민간 서민금융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 서민금융은 시장 실패의 영역으로 정책적 서민 금융과 민간부문과의 상충 문제는 해결되기 힘든 문제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 우체국금융과 신협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규제가 완화된다면 서민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1. 우체국금융 발전방안

(1) 우체국금융 업무 취급범위와 재무 현황

◆ 우체국의 업무 취급범위

- ✓ 우체국의 업무취급영역은 실질적으로 민간금융을 취급하면서도 민간상업은행에 비해 업무의 제약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 예금부분은 대체적으로 규제가 없으나 자산운영부분에서 대출과 신탁 그리고 신용카드 업무가 제한되어 경쟁력의 저하 및 서민금융의 공급에 제약조건으로 작용

<표 27> 우체국금융의 업무취급범위

구 분	예 금	환대체	대출	신탁	외화송금	환 전	신용카드	펀드판매
민영은행	○	△	○	○	○	○	○	○
우 체 국	○	○	×	×	○	○	×	○

* 외화송금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법적 요건 충족

* 펀드판매 : 금융당국의 인가 방침 발표로 금년 내 인가 신청 예정

◆ 우체국금융의 시장점유율

- ✓ 우체국 금융은 주로 예금과 보험을 취급
 - 예금의 경우 2015년 기준 57조원으로 국내금융기관 중 7위로 점유율은 3.2%에 이르며,
 - 우체국보험은 49조여 원으로 보험업계에서 5위로 6.4%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표 28> 우체국금융 시장점유율 현황(2015년도)

(단위: 억 원, %)

순위	은행명	총예금규모	점유율(%)	순위	생보사명	총자산	점유율
1	국민은행	2,086,546	11.7	1	삼성생명	2,262,438	29.2
2	우리은행	1,854,804	10.4	2	한화생명	988,554	12.8
3	신한은행	1,807,659	10.1	3	교보생명	865,889	11.2
4	농협은행	1,703,240	9.5	4	농협생명	572,190	7.4
5	하나은행	1,709,180	9.6	5	우체국보험	493,777	6.4
6	기업은행	762,236	4.3	6	ING생명	295,556	3.8
7	우체국예금	570,732	3.2	7	미래에셋생명	267,902	3.5
8	외환은행	538,813	3.0	8	신한생명	245,432	3.2
9	한국산업은행	344,389	1.9	9	흥국생명	229,429	3.0
10	SC은행	296,720	1.7	10	동양생명	225,709	2.9
11	한국씨티은행	229,649	1.3	11	메트라이프	174,767	2.3
12	수협중앙회	114,264	0.6	12	알리안츠생명	166,510	2.2
13-18	지방은행	977,315	5.5	13	KDB생명	154,312	2.0
19-22	비금융기관	4,844,701	27.2	14	푸르덴셜생명	143,959	1.9
				15-25	기타	656,363	8.5
합 계		17,840,248	100.0	합계		7,742,787	100.0

주: 1) 지방은행 :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은행

2) 비금융기관 :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신협, 새마을금고

3) 외환은행의 통합으로 외환은행의 2015년 자료는 2014년 자료로 대체

4) 새마을금고 자료는 2014년도까지 존재하므로 2015년 자료를 2014년 자료로 대체

자료: 은행별 결산공시(재무현황),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 우체국예금의 점유율이 과거 2008년의 4.5%에 비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이나 아직도 3%가 넘는 수준이어서 농어촌 및 소도시 지역에서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표 29> 최근 8년간 우체국예금 시장점유율 변동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우체국(A)	453,049	418,830	486,589	608,925	596,791	598,297	582,382	570,732
예금은행	6,298,998	7,512,727	8,738,906	9,478,014	10,232,527	10,533,865	11,377,312	12,424,816
비금융기관	3,376,048	3,909,835	4,327,983	4,266,678	4,264,934	4,339,552	4,583,550	4,844,701
합 계(B)	10,128,095	11,841,392	13,553,478	14,353,617	15,094,252	15,469,714	16,543,244	17,840,248
우체국예금 점유율(A/B)	4.5	3.5	3.6	4.2	4.0	3.9	3.5	3.2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수익성/건전성 현황

- ✓ 우체국금융의 수익성을 살펴보면 ROA는 0.22%, ROE는 3.07%로 시중은행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순이자마진은 비슷한 수준임

<표 30> 주요 은행 수익성 현황('15년 말 기준)

(단위 : %)

은행명	총자산순이익률(ROA)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순이자마진(NIM)
시중은행 평균	0.31	4.32	1.53
우리	0.16	2.59	1.41
한국SC	-0.45	-6.36	1.73
하나	0.23	2.81	1.42
외환	0.46	5.89	1.88
신한	0.49	6.71	1.5
한국씨티	0.42	3.92	2.41
국민	0.39	5.27	1.61
특수은행 평균	-0.14	-1.6	1.52
산업	-0.85	-7.56	0.77
기업	0.44	6.64	1.91
농협	-0.12	-2.09	1.94
수협	0.25	5.32	1.61
우체국	0.22	3.07	1.52

주: 한국수출입은행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 특수은행에서 제외함
 외환은행의 통합으로 외환은행의 2015년 자료는 2014년 자료로 대체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산운용을 위해 대출을 취급할 수 없어 수익률이 낮은 채권에 주로 투자한 결과로 나타남
- ✓ 2016년 우체국금융의 자산배분계획에 따르면 국내주식의 비중은 5.2%에 불과하고 대체적으로 채권 또는 채권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있어 투자수익률의 제고에 한계가 있음

<표 31> 2016년 전략적 자산배분계획

(단위: 억 원, p)

구 분		'15년 자산배분		'15년 12월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장부가자산		404,582	67.5	411,902	67.8
장부가채권		136,634	22.8	123,772	20.4
구조화채권		62,769	10.5	64,585	10.6
금융상품	이자형	34,675	5.8	37,020	6.1
	수익형	147,760	24.6	163,052	26.8
단기자금		18,600	3.1	19,430	3.2
대출금		4,144	0.7	4,043	0.7
시가자산		195,418	32.5	195,722	32.2
국내주식		29,061	4.8	31,666	5.2
국내채권		96,017	16.0	104,248	17.2
해외주식		16,727	2.8	14,379	2.4
해외채권		11,507	1.9	8,811	1.5
구조화채권		7,930	1.3	5,854	1.0
대체	이자소득형	15,091	2.5	9,728	1.6
	자본이득형	19,085	3.2	21,037	3.5
합계		600,000	100	607,625	100.0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 우체국금융의 건전성은 일반은행에 비해서는 낮으나 특수은행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 우체국의 2015년 BIS자기자본비율은 13.0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은행의 평균인 14.69%에 비해서는 낮으나 특수은행의 평균인 12.91%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임

<표 32> 은행별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은행별	'08말 (신BIS기준)	'09말	'10말	'11말	'12말	'13말	'14말	'15말
일반은행 평균	12.73	14.56	14.63	14.27	14.81	15.24	14.88	14.69
특수은행 평균	11.59	13.99	14.4	13.45	13.43	13.39	12.83	12.91
은행평균	12.31	14.36	14.55	13.96	14.3	14.53	14	13.9
우체국	12.69	12.82	13.77	10.76	9.78	11.84	12.96	13.02

* 2015년 우체국 BIS : 13.02(잠정)

◆ 예금계좌수 및 고객수

- ✓ 활동 예금계좌수 수는 18,186계좌(2014.9월 기준)에 달하며, 활동 고객 수도 12,908천명에 달해 금융접근성 측면에서 금융포용의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표 33> 예금계좌(고객)수 현황

(단위 : 계좌, 명)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9
계좌수	유지계좌수(천좌)	20,765	20,795	20,949	20,020	20,226	20,030	20,077	20,448
	활동계좌수(재계)	15,657	16,235	16,764	16,997	17,539	17,563	17,774	18,186
활동 고객수(천명)		11,423	11,699	12,108	12,157	12,326	12,396	12,600	12,908

자료: 우정사업본부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 우체국의 점포수가 2,768(2013년 기준)개에 달하고, 점포망들이 읍면지역에 다수 분포되어있어 일반 은행보다 지역금융 및 서민금융의 서비스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표 34> 우체국 및 은행 점포망 분포 현황

(단위: 개, %)

구 분	인구비율	우체국		일반은행	
		점포수	점유율	점포수	점유율
도시 지역	79.7	1,261	45.6	5,565	93.2
읍면 지역	20.3	1,507	54.4	404	6.8
계	100	2,768	100	5,969	100

주: 우체국(2013년 말 현재)은 집중국, 우편취급소 등을 제외한 금융업무 취급관서이며, 은행은 2006년 6월말 현재
자료: 우정사업본부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탁)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2) 해외 우체국금융의 사례

- ✓ 해외 주요국(33개 OECD 국가)들은 우편업무와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취급하는 국가는 24개국임
 - 대출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우편금융의 형태는 우편과 동시에 운영하는 국가가 10개국,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가 7개국, 위탁판매 형태로 운영하는 국가가 7개국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도 15개국에 이릅니다
- ✓ 조직형태는 대부분(29개국)이 공사형태이며, 한국과 미국은 정부조직으로 운용되는 구조이며, 독일과 네덜란드는 민영화하여 민간회사형태로 운용

<표 35> OECD 국가 우정사업의 금융사업 운영 형태

조직형태	우편·금융서비스 겸업			우편서비스만 제공(9국)
	동시 제공(10국)	자회사(7국)	위탁판매(7국)	
정부조직(2국)	한국			미국
공사(29국) (정부소유회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일본, 터키, 이탈리아, 스위스, 헝가리, 아일랜드, 포르투갈,	벨기에,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폴란드, 뉴질랜드	영국, 덴마크, 그리스, 호주,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핀란드, 아이슬란드, 칠레, 슬로베니아
민간회사(2국)				독일, 네덜란드

주 1) 동시제공(동일 주체에 의해 우편·금융서비스 제공), 자회사(다른 주체에 의해 우편·금융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소유구조상 관련), 위탁판매(민간금융기관의 상품 판매 대행)

2) *이탈리아*는 보험서비스 제공국가(15국)

자료: 우정사업본부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 일본, 프랑스, 네덜란드 등 우편업무와 금융 업무를 겸영하는 주요국의 경우 금융업무가 예금 외에 대출업무를 위탁 또는 직접 운영하는 등 농어촌 및 소도시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주요국의 우체국금융형태는 금융 감독(BIS 규제)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표 36> 주요국가 우체국 금융 개요('13.6월)

우체국 금융체계	우편·금융서비스 겸업					
	동시 제공		자회사		위탁판매	
국가	한국	일본	프랑스	뉴질랜드	영국	호주
경영체제	정부	민영화추진(2007.10),중 단(2009.12),재개(2012. 5)	정부소유주식회사 (2010.3)	정부소유주식회사 (1987)	정부소유주식회사 (2002) 민영화 단행 (‘13.10.11)	정부소유주식회사 (2007)
주주현황	정부기관	자회사(일본우정주식회사) 3개 자회사는 일본우정주식회사 소유	정부 100%	정부 100%	정부 37.5%	정부 100%
규제기관	미래창조과학부	예금, 보험은 금융적	프랑스통신위원회	경제개발부	OfCom	로드밴드·통신 디지털경제부
근거법률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은행법	은행법	은행법	Postal Services Act2011(우편법)	AustralianPostal Corporation Act (1989)
전액보장	O	X	X	X	-	-
BIS 규제	△	O	O	O	-	-
대출	X	O	O(주택담보)	O	O	O
예보료	X	O	O	O	-	-
예금사업 수익규모 (백만)	₩282,400 (경영수지)	¥ 373,948 (유초은행 당기순이익)	€574 (La Banque Postale 당기순이익)	97NZD (KiwiBank 당기순이익)	£ 94 (Post Office Limited 당기순이익)	AD200.6 (금융&Retail 당기순이익)
시장점유율	4%	개인예금시장의 1/4	개인예금시장의 10.8%	개인예금시장의 약 10%	-	-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3) 우체국금융 발전방안

- ✓ 한국의 우체국금융이 농어촌과 소도시 지역에 사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이용성의 제고를 통해 금융포용의 크게 기여
- ✓ 대출규제와 같은 자산운용에 제약이 강해 서민 및 지역에 대한 자금공급이 어려움
- ✓ **우체국금융의 오랜 역사와 운영경험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수준까지는 업무영역을 확대하여 지역/서민금융의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우체국금융의 대출규제완화를 위한 논리적 근거로는 **서민/지역 금융의 금융공급 확대, 기존 서민/지역금융 취급기관의 공정경쟁 촉진과 왜곡된 구조개선, 관계형 금융의 촉진, 수도권으로의 금융의 집중 완화, 우체국금융의 수익성 개선 등** 충분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최소한 제2금융권까지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
 - 최근 들어 서민금융의 어려움이 기존 서민금융기관들의 공급부족에 기인하기 때문에 57조원 예금 중 일부만 대출로 운용하더라도 민간금융시장에서 상당부분 해결할 여지가 있음

<표 37> 우체국 및 제2금융권의 설립 근거

구분	관련 법령	설립 근거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법	· 새마을금고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법	·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신용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	·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해 그 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 대한 금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우체국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 금융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저축의욕 고취, 보편적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경제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증진에 기여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2. 신협 규제현황과 발전방안

- ✓ 신협은 새마을금고, 단위조합(농협, 수협)과 함께 상호금융기관으로 서민금융공급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규제가 강해 서민금융 공급의 제약조건으로 작용
- ✓ 규제정도를 타상호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역차별적 규제를 파악하고,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
- ✓ 담보대출비중이 높으나 서민금융확대를 위해 신용대출 확대 필요

(1) 신협의 재무 현황

◆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 신협의 2015년 기준 조합 수는 910개이며, 과거에 비해 축소되었으니 이는 적자 조합의 폐쇄 등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나타난 결과임.
 - 조합원수는 575 만 명 이르며, 본점 외 지점수도 752개에 달함
 - 직원 수는 8,986명에 달하나 그에 비해 임원수가 8,454명으로 지나치게 많으나 대부분 비상근 이사(5,352명)와 비상근 감사(2,107), 비상근 이사장(367명) 등 비상임 임원들이 차지하고 있음

<표 38> 신협의 재무현황

구 분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비고(증감)
조 합(개)	954	950	942	920	910	▲10
조합원(천명)	5,863	5,905	5,825	5,722	5,752	30
임원수(명)	8,890	8,915	8,841	8,588	8,454	▲134
직원수(명)	9,313	9,243	9,143	9,035	8,986	▲49
지점수(개)	766	764	763	753	752	▲1

자료: 신협중앙회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 2015년 기준 총자산은 65조원에 이르며, 여수신도 각각 43.6조원과 58.3조원에 이르는 등 결코 규모 측면에서도 신협은 더 이상 작은 금융회사가 아니며, 성장 추이도 꾸준히 향후 정책적 규제완화 및 조합의 노력여하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됨

<표 39> 신협의 재무현황

구 분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비고(전년대비 증감)
자 산(조)	49.6	55.3	56.7	60.5	65.8	5.3
예 치 금(조)	12.3	16	15.7	16.5	16.8	0.3
유가증권(조)	4.6	5.2	5.2	3.9	3.5	▲0.4
여 신 (조)	30.8	32.1	33.8	38	43.6	5.6
수 신 (조)	43.3	48.9	50.2	53.6	58.3	4.7
출 자 금(조)	3.1	3.3	3.5	3.7	4.2	0.5

자료: 신협중앙회

- ✓ 당기순이익이 증가하고, 이익조합의 확대와 손실조합의 축소 등 조합 전체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다만 아직 손실 조합수가 많아 향후 손실 조합에 대한 경영개선이 필요

<표 40> 흑적자 조합현황

구 분	'11년 말	'12년 말	'13년 말	'14년 말	'15년 말	비고(전년대비 증감)
당기순이익	2,920	1,731	1,316	1,896	2,350	454
이익조합	886	797	757	806	812	6
손실조합	68	153	185	114	98	▲16

자료: 신협중앙회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2) 상호금융의 규제현황 비교

◆ 설립 및 감독

- ✓ 같은 상호금융회사지만 설립근거법상 감독기관이 서로 달라 신협의 경우 영업상 차별적 규제가 많아 경영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신협의 경우 감독기관이 금융위로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에 비해 엄격한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어 자산운용의 제약이 심화
- 다만 예금·대출 등의 신용사업, 경제사업, 공제사업 등 취급업무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

<표 41> 상호금융기관의 법적 근거 및 감독기관

구 분	감독기관			인허가	검사실시기관	부실조합 경영정상화
	경제사업	신용사업	공제사업			
신협	금융위				금감원 중앙회	금융위 (금감원) (중앙회)
농협	농림축산 식품부	금융위 (건전성 감독에 한정)	-	농림축산 식품부	금감원 (신용사업부문) 중앙회	주무관청 (중앙회)
수협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산림	산림청		-	산림청		
새마을 금고	안전행정부				중앙회 (금감원*)	안전행정부 (중앙회)

* 안전행정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율(보험료)

- ✓ 각 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은 동일하나 단, 업권별로 상호금융권 출연금 요율은 상이함

<표 42> 상호금융권 출연금 요율 현황

구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요율	0.25%(+0.05%) (0.30%)	0.18% (0.054%)	0.25%	0.15%	0.13% (0.095%)

- 1) 신협은 출연금 이외에도 예금보험공사 특별기여금(0.05%)을 추가 납부(2006~2017년)
- 2) 농협은 목표기금제에 의한 하한 달성으로 출연금의 70% 감면(실제 요율은 0.054%)
- 3) 새마을금고는 납입상한선(2.5억 원)을 두고 있음(실제 요율은 0.095% 상당)

- ✓ 신협은 부보예금대비 적립률이 1.47%로 유사 업권에서 비교적 높은 편이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영부담을 가중시켜 경쟁력 약화를 초래

<표 43> 금융권 예금자보호기금 현황

(단위: 억 원, %)

구 분	신협	농협	수협	산림	금고	은행	저축은행
부보예금	583,322	2,435,021	177,216	41,148	1,118,884	9,704,261	321,772
적 립 액	8,584	37,110	1,809	703	9,587	667,647	-17,583
기금적립률	1.47	1.52	1.02	1.708	0.86	0.69	-5.46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순자본비율 산출방식 개선 필요

- ✓ 모든 상호금융이 동일하지만, 신협은 출자금을 자기자본에서 차감하고 계산
 - '17년 1월 1일부터 신규 납입한 출자금 인출제한이 되므로,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필요

◆ 타법인출자허용 여부

- ✓ 신협은 타 법인 출자가 금지된 반면 여타 기관은 자기자본의 100%(새마을은 50%) 범위내에서 가능('19대 국회 계류)
- ✓ 서민의 금융편의를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신협의 외부출자를 허용이 필요함
 - 상호금융기관간 동일업무·동일규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선 필요

◆ 동일인대출한도 규제

- ✓ 자기자본의 20%와 총자산의 1%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점에서 동일하나,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에 대해서는 최고 금액한도를 추가 제한
 - 총자산의 1%는 5억 원 이내, 자기자본의 20%는 자기자본 규모(250억 원 미만, 이상)에 따라 30억 원, 50억 원 이내
 - 최고 금액한도는 신협의 성격상 대규모 대출을 제한하는 의미는 있으나 타상호금융기관에 비해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상실 및 규제의 형평성 문제
 - 지속적인 경제규모의 확대로 건당 대출요구금액은 계속 커지고 있으나 한도는 5억 원으로 제한되어 금융기관으로서의 경쟁력 상실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비조합원 대출한도

- ✓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권역에 따라 크게 차이남
 - 신협·산림 : 신규취급대출의 1/3 범위 이내
 - 농협 : 신규취급대출의 1/2 범위 이내
 - 수협·새마을 : 관련 제한 없음
- ✓ 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신협법시행령이 개정되어 '12.01.01.부터는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도 비조합원대출로 분류하고, 비조합원 대출은 당해년도 총대출액의 1/3로 제한되어 대출시장이 크게 축소
 - 간주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한하거나, 비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를 법령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협이 유일

◆ 신협도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협의 신용대출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담보가 없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신용대출의 확대가 필요함

<표 44> 협동조합형 금융기관 신용대출 비중 추이

(단위: %)

구 분	2006	2008	2010	2012	2014
농협	—	10.5	7.5	7.7	8.3
신협	21.8	14.8	9.6	3.8	1.9
새마을금고	0.2	0.5	0.1	0.1	0.1

자료 : 업권별 중앙회, 박창균·허석균(2016) 재인용

IV. 우체국금융/상호금융(신협) 등 주요 서민금융 개선방안

◆ 신협의 서민금융확대를 위해서는 리스크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배구조의 개선도 필요

- ✓ 금융 전문성을 보유한 실무책임자 고용 및 그 책임자를 감시하여야 할 이사회 전문성 구비 필요
 - 이사를 비롯한 실무진의 조합의 회계 및 경영 관련 지식 체득을 위해 실무진에 금융전문 교육 강화 및 전문인력의 고용 필요
 - 이사장은 조합의 일상업무를 실무책임자에 맡기고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중앙회의 회장이 비상임 명예직으로 전환되고 실무를 총괄하는 상임'전무이사'의 신설, 신용·공제사업대표이사, 검사감독이사 체제를 구축한다는 신협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 한편 현재 자산규모에 연동되어 있는 이사장 및 경영진의 보수체계를 자산규모는 물론 적립금 규모 등 자본 충실도, 자산건전성, 재무적 성과 등 다양한 지표와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자산규모 확대, 부실 발생 증가 등의 악순환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도
- ✓ 단위조합에 대한 외부 견제장치로서의 중앙회의 지도기능이 강화되어야 함
 - 재무적으로 부실하거나 경영상의 문제가 있는 단위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의사결정에 관한 투표권을 제한함으로써 중앙회의 외부 통제 기능수행에 독립성 및 객관성을 강화하는 등 단위조합에 대한 외부통제장치 역할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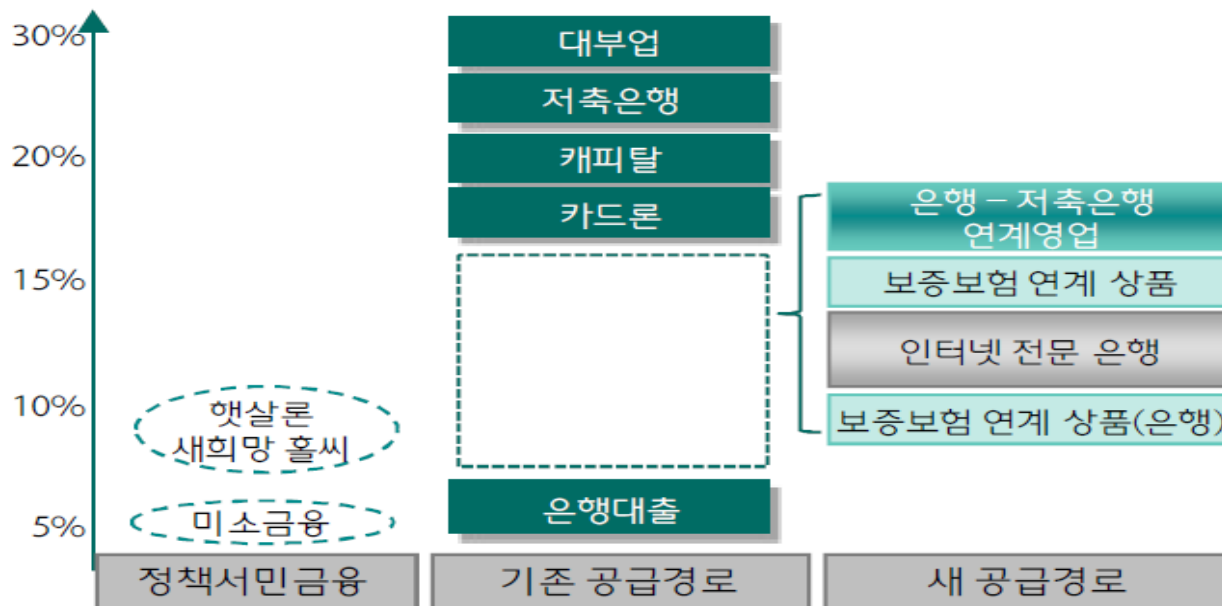
1. 기본방향

- ◆ 장기적 경기침체, 소득 양극화, 금융의 양극화속에서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부족은 심각한 수준임
 - ✓ 2007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이러한 저신용 서민들의 금융부족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향후 상당기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전망
 - 2007년 금융위기이후 저신용서민에 대한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축소는 장기화돼 대부업체의 의존도가 심화되는 등 개선이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축소가 가장 심한 금융기관은 단위조합과 카드사로 서민금융의 대표적인 두 금융기관의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축소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분석되었음
 - 한편 최근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는 주로 주택담보대출의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은 오히려 어려워지고, 고금리에 의한 금융비용 부담도 증가
 - ✓ 최근 정부는 이러한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을 통해 꾸준히 확대해와 2015년에는 약 4조 4,826억원(햇살론:2조106억원, 미소금융: 3,879억원, 새희망홀씨: 1조 9,584억원, 바꿔드림론: 1,257억원)의 정책지원을 하였으며, 또한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정책적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때문에 서민민간금융시장의 서민금융의 확대가 보다 중요
 - * 정책금융 실적추이: 34,978억원(2012년) → 46,631억원(2013년) → 42,563 억원(2014년) →44,826(2015년)
- ◆ 민간 서민금융시장의 규제 완화와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개선을 통해 축소되어온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공급을 확대하여 20%가 넘는 제2금융권의 대출과 30%가 넘는 대부업 대출을 축소하여 금융비용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

2. 정책적 개선방안

◆ 중금리 금융상품의 지속적 확대

- ✓ 최근 시중은행, 저축은행, P2P 등을 통해 10%대의 중금리 상품이 많이 출시되어 중신용, 저신용서민들에게 중금리대의 금융공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향후 이러한 중금리 금융상품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 중요
 - 주요중금리 상품: 우리은행 (위비뱅크 756억원, '16.4월말기준), 신한은행 (Sunny Bank 직장인 대출, 29억원), KEB 하나은행 (하나 이지세이브론), IBK 기업은행 (i-ONE 직장인 스마트론, 343억원), SBI 저축은행 (사이다, 305억원), IT친애저축은행 (원더풀 WOW론, 100억원), NH 농협캐피탈 (NH EQ론), P2P대출 중개회사 (렌딧 개인 신용대출, 138억원)



2. 정책적 개선방안

◆ 중금리상품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개인신용평가제도의 개별적 표준화 등 인프라 구축이 중요

- ✓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은 개인대출(카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등)시 3개 개인크레딧뷰로(Experian, Equifax, Transunion)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개인크레딧뷰러별로 표준화가 가능하고, 신용공급확대도 비교적 용이
- ✓ 한국의 경우 나이스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등 개인신용정보사가 제공하는 개인신용평가정보 및 신용점수가 있지만 아직 금융시장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신뢰를 받기에는 부족
- ✓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이 제공하는 개인신용점수가 금융시장에 유통이 되고 금융기관들에 신뢰를 바탕으로 표준화가 가능하여 적극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서민금융의 활성화가 가능
- ✓ 개인신용점수의 신뢰성 획득을 위해 신용정보의 수집과 유통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와 개인신용정보회사들의 노력이 필요

◆ 서민금융기관의 규제완화와 금융공급 확대

✓ 우체국금융의 대출허용

- 국내 우체국금융은 전형적인 서민금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금과 보험 업무만 허용되고 대출업무는 금지되어 자산의 대부분을 국공채와같은 저수익,저위험 자산에만 운영하여 투자수익률이 낮을뿐더러 저신용서민들에게 금융접근성의 기회를 제한
- 외국의 주요우편금융제도에 의하면 수신외에도 여신까지 허용하여 서민금융시장에서 우편금융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는데 한국도 우체금융의 대출을 허용하되 위탁운용, 예대마진의 점진적 확대 등 위험관리 수준에 따라 대출업무를 확대해나간다면 민간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 확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2015년 기준 수신 57조원 중 50%인 28.5조만 대출로 서민들에게 공급하더라도 서민금융의 자금부족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신탁의 역차별적 규제 완화

- 신탁의 경우에도 같은 상호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 및 농협에 비해 규제가 강해 서민금융공급에 한계가 있음
- 예금자보호기금 출연을 과다, 순자본비율 산출방식에서의 출자금배제, 타법인출자 허용금지, 동일인대출한도 제한, 비조합원 대출한도 제한 등에서 타상호금융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강해 서민금융기관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동일한 금융업무에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신탁의 상대적 역차별적 규제들을 빠른 시일내에 완화하여 서민금융의 공급확대에 기여토록 하는 것이 시급

◆ 정책적 서민금융제도의 개선방안

- ✓ 정부는 서민금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정책적 서민금융제도를 통해 4조 8천억 원의 서민금융을 공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도의 취지에 맞게 대부분 저신용자에 신용을 공급하는 등 각 서민금융 정책제도의 긍정적 효과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국내에도 다양한 서민금융제도와 기관들이 있지만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이나 인도네시아의 BRI 등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서민금융을 대표하는 전담금융기관이 없는 실정임
- 정부도 '서민금융총괄기구'로서 서민금융진흥원을 종합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설립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지만 기존의 제도와 기관들을 단순히 모아놓는 수준에서 벗어나 제도의 운영상 효율성을 높이는 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미소금융을 사회적 기업형태의 서민금융전담은행화

-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의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히 햇살론과 미소금융의 상품이름만 바꾸는 수준에서 벗어나 지원제도의 형태와 내용을 과감히 바꾸는 노력이 필요
- 금융지원은 보증대출인 햇살론, 직접대출인 미소금융, 고금리전환대출인 바뀔드림론으로 하되 전체적으로 대폭 단순화가 필요하고, 특히 미소금융의 획기적인 변화가 중요
- 서민금융진흥원은 크게 서민금융공급을 보증대출과 직접대출로 나누되
- **보증대출인 햇살론은 정부의 출연과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자금, 운영자금, 소액대출 등 다양한 서민금융의 수요에 저리(5~10%)의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으로 전환**
- **직접대출의 성격인 미소금융은 가능한 한 은행의 성격을 지니되 지나치게 저금리의 자금공급보다 시장원리에 맞게 대규모의 중금리 금융공급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
 - 지금처럼 저리의 자금공급은 햇살론에 맡기고, 저신용자에 대해 10%대의 중금리 금융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필요
 - 미소금융은 휴면예금 및 기부금을 자본금으로 하는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처럼 사회적 기업형태의 소규모 서민금융전담은행을 설립하여 중금리 금융공급확대를 추구하고,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소금융도 서민금융전담은행에 위탁하거나 기부금을 복지재단에 기부한후 자본금에 출연하여 운영한다면 지금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
 - 중앙재단, 대기업, 은행이 각각 따로 운영하고 있는 현재의 미소금융을 전산통합 등을 통해 정보의 공유, 운용방법의 일관성 유지 및 표준화를 추구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

✓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정보의 공유와 통합관리를 통해 맞춤형 서민금융지원

- 서민금융진흥원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해서는 각 정책적 서민금융지원제도 및 저신용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용정보의 공유와 통합관리를 통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
- 기초생활수급자, 7등급이하의 저신용자, 대부업체 이용자,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장기연체자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대상이 되는 저소득서민들에 대한 정보들을 종합관리를 한다면 적합한 진단과 적합한 지원제도를 통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
- 지금처럼 신용정보의 공유가 안된 상황에서는 중복지원 등의 비효율성을 초래